메트로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 사업을 위한 설계안 국제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의 '서울수목원'(위)과 박원순 시장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한 뉴욕시의 '하이라인파크'(아래 왼쪽), 도심 속 폐쇄 철로를 이용한 하늘공원의 효시인 프랑스 파리의 '플랑티 산책로' /사진출처=서울시, CNNmoney

뉴욕 하이라인?… 근본부터 다르다

하이라인-빌딩 사이 폐쇄된 고가철로 주민 스스로 공원으로 조성
서울역 고가-도심 동서 잇는 교통요충, 새 고가에 보행로 만들면 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차도를 '하늘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역 철길을 중심으로 동서로 생활권이 나뉠 위기에 처한 주민과 남대문시장 상인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검사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대신 이곳에 뉴욕 맨해튼의 '하이라인 파크' 같은 보행자 전용 도심 하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3일 발표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의 '서울수목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이르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시장도 2011년 10월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에는 전임 오세훈 시장시절 '철거 후 새 고가차도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울시장 재선 뒤 미국을 방문한 이후부터는 기존 고가차도를 그대로 둔채 뉴욕 맨해튼 서부에 있는 '하이라인 파크'와 같은 하늘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 서울역고가는 기존 교통 요충로… 뉴욕 하이라인은 폐쇄된 철로 공원으로 복원

하지만 서울역 고가차도는 뉴욕 하이라인파크와는 기능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따라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하이라인은 이미 폐쇄된 철길을 공원으로 재생한 것이다. 반면 서울역 고가차도는 지금도 서울 구도심의 동서를 잇는 핵심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역 주민의 반응도 180도 다르다. 하이라인의 파크는 뉴욕시 당국이 안전을 우려해 철거를 추진했으나, 주민이 스스로 철거 대신 공원화를 주장해 성사된 케이스다. 반면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는 동서 교통망 단절을 우려한 주민과 남대문시장 상인 등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시민개방행사에서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되면 종로에서 서울역을 지나 명동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대문 시장 등의 경제적 재생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서울역 부근에 대체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 건축가는 "어차피 대체 고가를 만들 계획이면 기존 시설은 안전문제도 있으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좀 더 넓고 튼튼한 고가도로를 지어 보행로까지 만들면 박 시장이 말하는 목적에 모두 달성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 낭비를 하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기존 고가를 철거한 뒤 대체 도로 건설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뉴욕 하이라인파크 지역과 달리 철길에 의해 동서로 나뉜 서울 구도심은 단절 부작용으로 상권 붕괴와 차량 우회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 '하이라인파크'는 주민 스스로 조성… 파리 '플랑티산책로'도 폐쇄된 고가철길 이용한 주민 산책로

CNN머니에 따르면 2006년 제1구간 공개에 이어 올 봄 최종구간까지 공원화가 완공된 하이라인파크는 매년 4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뉴욕의 도심 속 명소가 됐다.

하이라인은 원래 화물열차용 고가 철로였다. 철길은 1934년 서부 맨해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원래 이 지역에는 많은 공장과 창고가 있었는데, 철도는 가지처럼 형태로 이들 공장 빌딩까지 곧바로 이어졌다. 하이라인으로 변모한 철길은 이 일대에 있던 정육업체 공장으로 연결된 것이었다.

하지만 차츰 공장들이 맨하탄을 떠나고 트럭이 보다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되면서 이 철길은 1980년 폐쇄됐다.

철도는 수년간 무용지물로 방치됐고 시 당국은 이를 철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1999년 지역주민이 추억이 담긴 이곳을 부수지 말고 철로를 그대로 둔 채 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2006년 제1구간 공원이 오픈됐다. 주민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의 극찬이 쏟아졌다.

주민과 관광객은 판자를 깔아만든 바닥과 벤치, 이색 토박이 식물, 약간 높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조망 등이 어우러진 하이라인에 감동을 받고 있다.

올해 봄 제3구간과 마지막 구간까지 조성작업이 마무리돼 일반에 공개됐다.

도심 속 고가도로나 철로에 지어진 하늘공원의 효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플랑티 산책로'(Promenade Plantee)다.

뉴욕 하이라인도 파리의 이 선구자적인 시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플랑티 산책로는 원래 철도가 놓여있던 곳에 1993년 조성됐다. 1859년 개통된 이 파리 도심 철로는 총 길이 4.8km로 1969년까지 기차가 다녔다.

플랑티 산책로는 이 철로 가운데 고가 위에 부설된 1.6km 구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석조 고가 위에 조성된 이 산책로 곳곳에는 작은 상점과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으며 중간에는 지면으로 내려오는 구간과 터널도 있다.

/김민규기자 unha@metroseoul.co.kr

숙청됐다는 현영철, 지금도 TV 등장

현영철 숙청' 국정원 보고 3가지 의문점

국가정보원의 '현영철(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보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사총을 사용한 공개처형이었다는 설 수준의 정보는 물론이고 숙청 사실 자체도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현영철 숙청 보고에는 3가지 반대 증거가 존재한다.

전날 국정원은 현영철이 4월 30일께 처형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숙청 당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현영철이 리영길(총참모장)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공연은 27~28일 열렸고, 기사는 29일 작성됐다. 적어도 29일까지 현영철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셈이다. 30일 전격 체포돼 곧장 공개처형 됐다고 보기에는 그의 죄목이 분명하다. 국정원이 밝힌 그의 죄목은 김정은 험담'과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졸거나 말대꾸한 김정은에 대한 불경'이었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현영철의 이름이 검색된다. 검색결과에는 4월 30일자 기사는 물론이고 이전 기사까지 검색된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까지 그대로 나온다. 과거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총참모장) 숙청의 경우 숙청설에서 1주일 전후로 그들의 이름이 북한 매체에서 모두 사라졌다. 노동신문은 당국가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발간한다. 어느 매체보다 검열이 엄격하다. 현영철의 숙청에 대한 반대 증거인 이유다.

현영철의 얼굴이 숙청 이후에도 북한TV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도 반대 증거다. 현영철은 5월 5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북한TV에 나왔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노동신문 2015년 4월 30일자 2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제공

국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현영철이 숙청됐다면 그의 얼굴은 화면에서 삭제되는 게 북한 내부의 상식이다.

정 실장은 "국정원이 정보분석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정 간부가 숙청됐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북한 매체의 보도 변화를 우선 분석하고 이후 김정은 관련 기록영화에서 등장한 모습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한다는 원칙이다. 모습이 지워졌다면 숙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충분한 검증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은 소문 확산과 외신 보도 가능성이 있어 다급히 '면피성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숙청'과 '중징계'를 엄격히 구분한다. 숙청은 강제수용소 수감이나 처형을 의미한다. 강등이나 노동교화형인 중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복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숱한 숙청설이 중징계를 과장했거나 아예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실장은 "현영철이 불경죄로 인민무력부장 직에서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대만 '일본산 식품' 수입 전면 중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위험이 제기돼 온 일본산 식품에 대해 대만이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대만은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의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대만은 15일 이후 일본의 항구와 공항에서 출하된 식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날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양국 당국자 간 협상에서 대만은 자신들이 내건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대만은 지난달 16일 일본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산지 증명을 요구했다. 또 도쿄도와 시즈오카현 등 특정지역산 수산품 차, 유아식품 세 가지 종류의 식품에서 고위험 상품 인 830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연기를 요구했지만 대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다만 양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 정지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일본은 대만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정윤아기자 yoona18

종잇장처럼 구겨진 암트랙(Amtrak) 객차 승객 238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암트랙(Amtrak) 열차가 13일 오전 (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탈선해 최소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했다. 사고 현장의 객차 한 동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다. 미국 유일의 철도회사인 암트랙은 미국(America)과 트랙(Track)의 합성어로 정식 회사명은 전미여객철도공사(The 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알래스카와 하와이,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주를 제외한 46개주 500여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2만2000마일 선로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는 '헌법 9조'를 지켜라! 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관저 주변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한 시위자가 '헌법 9조를 지켜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약 500명이 모여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IMF, 한국 성장률 '세번째' 하향조정

"한국 성장동력 정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반 달 만에 또 다시 하향조정했다. 벌써 세 번째 하향조정이다. '성장동력 정체'가 이유였다.

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한국과 2015년 연례협의를 마친 뒤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성장률을 10월 4.0%로 전망했다. 이후 지난 2월 3.7%로 하향조정했고 4월에는 3.3%로 다시 한 번 하향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정체됐다며 세월호 참사를 경제로 접어들게 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2014년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약 0.5%)이 직전 4분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이유다. IMF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 심리가 놀라울 만큼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IMF는 201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근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예상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회복되고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예상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 둔화, 엔약세 지속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타격, 글로벌 금융환경의 부작용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IMF는 일부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봤다.

IMF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추가적인 부양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개입에 그칠 것을 조언했다. /송병형기자

軍 "가해자 최씨, 치밀하게 범행 계획"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지난달부터 친구에 문자로 암시
'통계 없는 1사로' 집요하게 요구

지난 13일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은 치밀한 계획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육군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가해자 최모씨는 총기난사에 앞서 작성한 유서에서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고 적었다. 친구에게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범행에 관한 암시를 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 친구에게 "예비군 사격 실탄 말하지 않아도 예상(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사격은 훈련 이틀째 실시됐다. 최씨는 전날부터 당일까지 집요하게 1사로 사격을 요청했다. 1사로에 사격통제 요원이 없었던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로 배치는 현장에서 사로를 정해주지 않고 한 번에 투입되는 20명이 무작위로 선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예비군에 따르면 최씨는 현장에서 1사로를 차지하지 못하자 열 번 넘게 주변 예비군에게 부탁해 2차례 사로를 바꾼 끝에 1사로를 차지했다. "최씨는 사격이 잘 된다는 이유를 댔다. 징징거려서 결국 자리를 바꿔주었다"는 증언이다.

최씨는 훈련 첫날 실사격을 위한 예비연습까지 할 정도로 치밀했다. 훈련을 같이 했던 예비군은 "훈련할 때도 계속 이상했고 첫날도 이상했다"며 "탄창을 빼고 총기 교육을 하는데 조준하듯이 (연습했다)"고 말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열심히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상할 정도로 한 것"이라며 "예행연습 하듯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다. 또 군 입대 전인 2010년 2월에 명상장애로 3회, 전역 후 적응장애로 3회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약 4~5개월전부터 선박용접공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다 실패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은 "예비군으로 편성되면 카드에는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나온다"며 "관심병사 정보는 넘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역시 정신병을 앓고 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해결 될 수도 있고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시절 병력을 예비군 때 활용하는 문제는 법리으로 차후 거론될 문제"라고 말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공개된 총기 난사 사건 현장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내 사고현장인 예비군사격장을 군 관계자가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JP가 '포스트JP'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14일 '포스트 JP'라고 불렸던 이완구 전 총리의 검찰 소환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내비치면서 "정직하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나가길 희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휘보전 출판기념회에서 배우 이영애에게서 꽃다발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에 총리가 없었어?

14일로 이완구(사진) 전 총리가 사임한 지 17일이 지났지만 세간에는 '총리가 없는 줄도 몰랐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총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정 2인자 대한민국 총리,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총리 없는 나라, 총리가 없어도 되는 나라, 없어야 하는 나라, 웃기지도 않는 나라..."라는 트위터 글이 온라인상에 떠돌기도 한다.

기사와 트위터 게시글에는 "총리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거나 "책임 개정해서 대통령이 총리를 겸식토록 하면 어떨까"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날 이 총리가 검찰에 출석한 모습을 보고서야 총리 공백 상태를 인지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통과 등의 문제로 총리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서이기자 ...21779

평창올림픽 경기장, 2017년까지 완공

개막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정부는 14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 신축하는 6개 경기장을 201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강원도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설공사, 예산·인력, 스폰서 유치 등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새로 건설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와 관동대 하키센터 공사를 2017년말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현재 이들 경기장은 17~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스노보드, 컬링 경기장 시설은 국제경기 기준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다. 시설공사 총사업비는 당초 7637억원에서 426억원을 증액한 8063억원으로 결정됐다. 평창 선수촌 건설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용평리조트와의 협약이 완료돼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림픽 조직위의 민간기업 스폰서십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범무부인 대한항공 삼성그룹, 대한항공, KT, 영원아웃도어 등 7개 기업이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해 총 3620억원을 후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액인 8530억원의 42%에 불과해 다른 기업들으로부터 추가 후원을 받을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에 "평창 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 국운 융성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기관들은 사명감을 갖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 시설 마련, 대회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정기자 ...

증인 3人 "2명이 신문 40여부 빼앗아" 증언

신세계측 "1명이 몇 부 챙긴 것" 주장 정면 반박 — "특수강도 유력증거"

신세계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3명이 "신세계 직원 2명이 모두 40여부의 신문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는 일관된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한 명이 10여부를 챙겼을 뿐"이라는 신세계측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들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용의자들은 특수강도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증언한 사람은 당시 메트로신문 배포 도우미 최아무개(73)씨와 택시기사인 고아무개(74)씨, 주변 소규모 가판상인 정아무개씨 등 3명이다.

메트로신문사는 이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키로 했다.

14일 증언을 종합해 보면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달 8일 오전 8시 15분쯤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이 한 명은 회현역 지하계단 근처에서, 또 한 명은 6·7번 출구 근처 지상에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해 담당자 메트로신문을 절취 또는 강탈해 가려다 배포도우미 최씨와 몸싸움이 시작됐다.

최씨는 녹취록에서 "(4월 8일) 8시 20분쯤(실제로는 15분쯤) 배포하기 좋게끔 신문을 접어서 (회현역) 지하로 내려갔다. 개찰구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는 과정에서 낯선 젊은 사람(나중에 경찰에 의해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최아무개 주임으로 밝혀짐)이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신문을 뺏어갔다"고 말했다.

신문 10여부를 챙긴 최 주임은 "어디에서 나오셨느냐"는 최씨의 물음에 "언론사에서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최씨에 따르면 몸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회현역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담겼다. 바닥에 놓여있던 30여부를 합쳐 총 40여부의 신문을 챙긴 최 주임은 회현역 6번 출구 계단으로 도망갔다. 최씨는 "힘에 부쳐서 나중에는 그냥 따라 올라(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고씨는 당시 6번 출구 근처에 있다가 때마침 승강이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최씨를 도운 인물이다.

고씨는 녹취록에서 "(현장에) 두 놈이 있었다"며 "신문은 한 장만 가져가게 돼 있어서 불법으로 걸린다고 말했는데 못 내놓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고씨는 최 주임이 지하에서 신문을 강탈하는 동안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이 지상 배포대에 있던 신문을 절취하는 것으로 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최 주임은 최씨와 고씨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히고 출구 밖에서 지상 배포대에 있던 신문을 챙기고 있던 또 다른 신세계 직원 1명은 최 주임이 지하에서 가져온 신문까지 건네받아 마침 주변에 있던 택시를 타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신세계 홍보팀이 근무하는 건물은 회현역 바로 주변인 남대문시장 내 '메사' 빌딩에 있다.

회현역 7번 출구 앞에서 소형가판을 운영하는 정씨도 당시 남성 2명을 정확히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거기(6번 출구 앞)에서 시끄럽기에 보니까 젊은 놈 두 놈들(신세계 이마트 직원 2명)하고 노인네 둘(최씨와 고씨)하고 (있었다). 쫓아가서 왜 싸움을 하냐고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신세계 직원 1명이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은 똑똑히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문을 가지고 한 놈이 저쪽에 있더라. 신문 가진 놈보고 신문을 왜 가져가냐고 하며 쫓아가니 미친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결국 택시를 탄 직원은 도망가고 최씨와 몸싸움을 벌인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여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직원이 출근 길에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10부 정도를 가져오려고 한 것뿐이다. 이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거나 무가지를 40부씩이나 탈취해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는 주장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수의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남성 2명이 (지상 배포대에 있던 것을 제외하더라도) 신문 40부 가량을 탈취해 도망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70대 고령인 배포 도우미 최씨는 "당시 갑작스런 충격과 폭행으로 허리 통증이 오고 불면증과 깜짝깜짝 놀라는 스트레스 증세까지 나타나 지금도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34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강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편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어선에 올라탄 태산이·복순이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됐다가 대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14일 어선에 태워져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의 해상 가두리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택시업계 "시간·장소 따라 요금 적용해야"

조합 "수요·공급 탄력 대응" 시 "사실상 요금인상 요구"

서울 택시업계가 시간과 장소, 요일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요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고객맞춤형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요금체계는 시간과 장소, 요일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단거리 승객은 요금을 더 받고 대신 장거리 승객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또 한증 시간 등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는 요금을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할증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합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자 전날 서울 교통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맞춤형 택시요금제 도입과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거리비례 요금(142m당 1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비례 요금(35초당 100원)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택시 속도가 증가하면 시간당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낮은 시간비례 요금은 정해진 시간에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 택시기사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과속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또 혼잡한 시간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면 일종의 혼잡통행료처럼 작용해 택시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요금 조정이 요금 인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무조건 택시 요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요금체계를 수정해 수요와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상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국은 요금을 올리겠다는 취지"라면서 "현재로서는 2월 발표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에서 언급된 내용 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집유 2년

방송인 서세원(59·사진)씨가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열린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폐쇄회로)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사건 당시 남편 서씨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서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재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홍원기자 hone@

200억 비자금 박재천 코스틸 회장 구속 — 수사 탄력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매출액을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이고 나서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편미란기자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심리불속행 막기 위해 찍는 전 대법관 도장값 5000만원

최근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일 임명된 박상옥(59) 대법관은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상 근거없어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박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대법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났다. 또 어용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기 전 개인 사무실을 열어 5년 동안 60억원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3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사실상 사건 하나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관', 특히 '대법관'의 도장이 필요하다. 대법원에는 심리를 열지도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회 임종인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평균 6.6%였다. 반면 전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를 기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렵게 상고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는 종이쪽지 한 장 달랑 송달되니 변호사로서는 공포의 제도"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도장만 찍어주면 3000만~5000만원까지 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3심까지 간 의뢰인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일단 서류에 대법관 도장을 찍으면 최소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2011년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관행은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한 문화처럼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옥 대법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신평 교수 홈페이지

신평(59)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전관예우는 연고주의의 한 발현이며 이 문제의 특징은 사회 소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제공하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라며 "소집단에 대한 충성의식은 끈끈이 강요되고 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며 "전관예우는 법계도만 하나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전관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임료를 지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판·검사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관예우 현상에서 발현하는 법조계 내부의 은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수사권에 대응할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檢, '금품수수 의혹' 이완구 소환… 확신 증거 모아

재보궐선거 회계자료 확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당시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전날(1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선거당시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14일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이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의 지역구 업무와 조직관리 수행 실무를 총괄한 만큼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제기된 2013년 4월에도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자금관리를 비롯한 전거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총리가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났는지,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뒤집을 반박 자료가 있는지, 선거자금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두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은 김 비서관의 말맞추기 회유 의혹도 집중 조사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와 자신의 특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금품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유한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 방문 당시 동행한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등을 조사하면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남' 뒤 3000만원을 준비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돈을 담는 데 사용된 '비타 500' 상자와 관련해선 성 전 회장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모 은행지점에서 비타 500 상자와 함께 쇼핑백에도 현금을 넣어보는 현장검증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 전 총리의 경우도 쇼핑백에 담겨 오고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미은기자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인 14일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열린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1991년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출소했다.

10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홍원기자

서울여자大, 영어 캠프 SWELL 수강생 모집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미래문화교육단 외국어교육원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운영되는 합숙 영어캠프를 비롯해 영어 단과반 종합반 등 2015 여름학기 SWELL(스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화)까지다.

합숙 영어캠프 스웰(SWELL)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영어 캠프로, 5주간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24시간 영어만을 사용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연수보다 효과가 높은 영어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http://swell.swu.ac.kr)에서 2015 여름학기 SWELL 프로그램의 신청방법과 상세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노사갈등 고조… 하나·외환銀 통합 갈길 멀다

가처분 심리 앞두고 개인정보 수집 논란 등 대치

조기통합을 위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하나·외환은행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가입과 질병 등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부터 2·17합의서 수정안 반송과 관련한 첨예한 공방까지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 개인정보 동의·2.17합의서 반송 공방

14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외환은행이 임직원 동의서를 통해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해명의 자리였다.

김 행장은 이날 "동의서 항목들은 관련법규에 의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이용을 동의받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계속 같은 양식을 사용했고 노조에서도 3년(6개월)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항목에는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을 비롯해 노동조합 가입 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 등이 필수정보로 담겨 있다.

김 행장은 "외환은행이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를 인권 침해와 노조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노조)가 왜 이의신청 2차 심리를 앞둔 시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규탄대회를 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외환은행 정문 앞에서 외환은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시기의 문제는 아무런 쟁점도 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15일의 가처분 심문기일이나 통합 관련 대화와 연결짓는 것은 대단히 치졸하고, 또 사실과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잘랐다.

◆ 노사 줄다리기 팽팽… 피로감 누적, 진정성 우려 제기

오는 2017년까지 외환은행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2·17합의서 수정안 문제 역시 노사를 민감하게 하는 주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0일 하나금융측에 "2·17 합의서를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바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 2·17 합의서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이후 노조는 "하나금융이 종전처럼 2·17 합의서의 완전한 폐기와 즉각적인 조기통합추진을 전제로 한 '합의서조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반송했다.

이에 사측은 "경영진이 통합은행의 브랜드명에서부터 구체적인 고용안정과 인사운용 방안을 포함한 안(案)을 노조에 새롭게 제시했지만 노조에서는 2·17합의서 폐기안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미궁 속으로 빠지자 일각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진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 모두 대화를 내세우며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말로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계속된 공방 속에 죽어나는 건 결국 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보다 은행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미란기자 olive0303@metroseoul.co.kr

'광주 태전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늘 개관

현대산업개발은 15일 경기 광주시 태전4지구에 공급하는 '광주 태전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 규모다.

45번 국도를 통해 광지IC를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말에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광주역이 개통된다. 2016년에는 근처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2021년에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 북측과 마주한 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 반경 1km 내 태전초, 광남중·고가 있다. 단지남측에는 쇼핑타운, 식당, 학원, 마트 등이 있는 상업지구가 위치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4번지에 있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신한은행, 미얀마 의료인력 조정 연수 기금 전달 신한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해외 자원봉사와 의료 인력 조정연수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달 미얀마 의료 인력을 초청해 오는 11월에 걸쳐 의료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조용병(가운데 왼쪽) 신한은행장과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삼성물산, 사우디 리야드메트로 공사 돌입

삼성물산이 사우디에서 새로운 토목 역사를 쓰고 있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 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사우디 리야드메트로 현장에서 리야드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TBM(Tunnel Boring Machine) 굴진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BM은 드릴 형태의 터널 굴착 장비로 일반적인 발파 방식에 비해 작업속도가 빠르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도심 토목공사에 적합한 최신 공법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적용된 직경 9.74m 크기의 대형 TBM 사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앞서 3월 19일에는 FSLM(Full Span Launching Method) 방식의 교량 상판 거치 행사를 열었다. 이는 리야드메트로 프로젝트의 총 6개 노선 중 최초의 교량 상판 설치 기록이다. FSLM은 삼성물산이 인천대교와 호남고속철도 등에서 수행한 바 있는 교량 시공법으로 공기 단축은 물론 공사 중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로
사진·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01

MMF·채권형 펀드 증가… 4월 펀드 규모 428조

자금 쏠림현상 계속돼

지난달 전체 펀드 순자산이 전달보다 18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전문가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 펀드로 자금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4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펀드 설정액은 428조1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7조6000억원(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투자 대기 자금 성격이 강한 MMF의 순자산은 전월보다 11조2000억원(10.9%) 증가해 113조6000억원이 됐다.

채권형 펀드의 순자산은 3조5000억원(4.5%) 늘어난 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전달보다 3조2000억원(4.6%) 증가한 73조5000억원이었고, 해외 채권형펀드의 순자산은 3000억원(3.7%) 늘어난 8조4000억원이었다.

주식형펀드는 국내형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해외형에는 돈이 들어왔다. 4월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2조7000억원이 순유출됐고 해외 주식형펀드에는 3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전달보다 6000억원(1.0%) 감소한 60조8000억원을, 해외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전달 대비 1조4000억원(8.8%) 증가한 17조1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재간접 펀드의 순자산은 전달보다 1조5000억원(7.0%) 증가한 22조6000억원이 됐다.

이밖에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은 전달보다 소폭 오른 31조8000억원과 32조5000억원이었다.

/이국기기자

AIG손보, 텔레마케팅 인원 400명 구조조정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기존 TM 인력 없애 사업비 필요없는 카드슈랑스채널만 운영

AIG손해보험이 지난해 텔레마케터 조직을 없애고 카드사를 통한 보험영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TM영업 금지 영향과 사업비 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손보는 지난해 상반기에 다이렉트마케팅(DM)부서를 없애고 담당 전무를 해임했다.

소속 설계사수도 급감했다.

지난 2013년 말 469명이던 설계사는 지난해 6월 말 56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에는 44명으로 줄었다. 1년 만에 400명 이상이 감소한 것.

AIG손보는 자회사형 독립보험대리점(GA)인 AIG어드바이저를 제외하면 대면영업이 가능한 전속 설계사가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구조조정된 설계사들은 전부 텔레마케터로 볼 수 있다.

AIG손보는 기존의 인바운드 콜센터도 없앴다.

현재 남아있는 설계사 인원은 기존의 보험가입자에게 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IG손보는 개인보험 영업채널을 카드슈랑스로 일원화했다.

카드슈랑스란 신용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가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하고 보험사는 계약액에서 수수료를 카드사에 제공하는 영업형태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의 인건비와 고객 콜센터 등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TV를 비롯한 광고비도 줄일 수 있다.

AIG손보의 개인보험 영업채널 축소는 지난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을 보름간 중단시켰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TM 채널 초회보험료는 1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2억4000만원)보다 53.5%(199억4000만원) 감소했다.

AIG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기존 인바운드 TM인력을 전부 구조조정했다"며 "이는 사업비 절감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15년 만기한 급형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는 등 기존의 단기상품을 전부 없애고 장기상품으로 라인업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IG손보의 지난해 영업이익(2014년 1~12월)은 618억8000만원, 당기순이익은 464억67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회계기준(2013년 4~12월) 영업익 197억200만원, 당기순익 163억74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이 기간 사업비(지급경비)는 1442억5400만원에서 1357억6500만원으로 줄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대포통장 근절" 국민銀 협의체 구성

KB국민은행이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유관 부서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담당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에는 대포통장 개설예방 교육을 55차례 실시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했다. 오는 6월부터는 현금 300만원 이상 이체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 인출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도 구축해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개설에서 자금 인출단계까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均기자

미국 지표부진에 달러 대비 원화 값 9.2원 올라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여파로 달러 대비 원화 값이 상승세(원·달러 환율 하락)로 돌아선 14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2원 내린 달러당 109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우리銀, 다문화학생 483명에 장학금

우리은행은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5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학생 483명에게 장학금 2억41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생은 필리핀 등 30개국 다문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09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20명,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14명으로 선정됐다.

이광구 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된 다문화 장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위해 정진하는 우수인재들"이라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해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이 최고의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메시지와 기존에 선발한 선배 장학생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백아란기자 × xx@

이광구 은행장 겸 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다문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도보 5분·강남 30분… 허위·과장광고 주의!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에서의 신규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광고도 넘쳐나고 있다. 교통여건을 내세워 서울에 전세로 살면서 도심, 강남·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수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단지 상당수가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 등의 광고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카탈로그나 전단지에 명기하지 않은 단지들도 상담원이 입지나 교통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광고와 실제 이동시간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한 '모아엘가2차'와 '반도유보라4차' 아파트 두 단지 모두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까지 걸어서 5분거리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구래역과 사업부지가 맞닿아 있는 '반도유보라4차'와는 달리 '모아엘가'는 한 블록 이상 떨어져 있다. 기준점에 따라 다르지만 직선거리는 700m 남짓이다. 성인 걸음으로 10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모아엘가2차도 구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면서도 "5분 만에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중간에 큰 도로도 건너야 해 쉬지 않는 한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용인·평택·화성 등 경부라인을 따라 공급되는 단지들의 광고에는 '강남권 30분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판교~여주간 복선전철, GTX, KTX 등의 교통호재가 많은 데다 강남까지 연결되는 도로망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 배차간격, 환승시간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도 빠져 실제 강남권까지 30분대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량 이용 시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을 감안할 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광고문구에는 '강남권' '30분대'로 쓰는데 강남권이라 하면 수요자들은 강남역~삼성역 테헤란로를 떠올리지만 강남·서초·송파구 경계선 안을 말한다"며 "30분대 역시 39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직장에 도착하는데는 1시간 이상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들이 교통여건을 강조하기 위해 최상의 조건에서 잰 이동시간을 내세우곤 한다"며 "분양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동거리나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xx

5%룰 완화… '대체거래소' 설립 탄력

증권사 7곳 200억 출자 합의 금융위 "연내 출범시킬 것"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체거래소(ATS)'란 기존 한국거래소 외에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를 말한다. 거래소가 관할하는 주식거래시장의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체제를 구축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주식과 선물매매 체결을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대체거래소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는 ATS 설립 방안에 대해 공동출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지나치게 높은 법적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체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 되야 한다. 거래량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를 넘어선 안되고, 개별종목 거래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의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5%룰'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7곳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공동출자 형태로 ATS를 출범시킬 경우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연내 ATS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향후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다수의 대체거래소와의 경쟁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배당 수익과 지분평가 이익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 간 가격경쟁으로 투자자들의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대체거래소가 빠르게 기존 거래소 시장을 잠식했다"면서 "미국의 경우 전체 주식 거래의 42% 이상, 유럽은 3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기자 srn @metroseoul.co.kr

품질↑ 생산비↓… 농협 "쌀 직파재배하세요"

고령화·쌀 관세화 개방에 100억 지원·재배 홍보 총력

농협이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나섰다.

14일 농협은 지난 13일 청성농협 관내에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직파(무논점파)재배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와 쌀 관세화 개방 등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파재배란 볍씨를 직접 논에 뿌려 벼를 자라게 하는 새로운 벼 재배방법으로 모내기 보다 생산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앞서 농협은 직파의 일종인 무논점파의 기술보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생산비용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범재배 결과 무논점파는 육묘와 이앙작업은 동시에 해결해 이앙재배에 비해 ha당 35만6000원의 생산비용이 절감됐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또한 병해충 발생을 억제와 도복에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벼 직파 재배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올해 총 22개 농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시·군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는 직파기 보급과 은행비용 보전 등 100억원을 지원해 직파 재배면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직파재배를 2024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의 20% 이상으로 확산시켜 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농기계 수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영농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농협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수리용 이동정비차량 100대와 세이프로더(운반차) 50대를 전달했다. 또 영농현장의 고장농기계 출장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총 400대의 정비차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혜민기자 a/ vell203@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가 벼 직파재배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NH투자證 서울·광주 등 전국서 中·유가 투자전략 강의

NH투자증권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중국·유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그리고 유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9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20일), 부산(21일), 대구(26일)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동식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해사무소장이 최근 고점 돌파 후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중국증시의 대응전략과 유망 종목에 대해 설명한다.

또 강유진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이 40 달러 대에서 60 달러 대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 전망하고 관련된 원유ETF 투자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전세계 31개국 해외주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연기자

유진투자證 연 2.49% 수익 ELB 판매 유진투자증권이 15일 오후 2시까지 '제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1년 만기 원금보장형이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연 2.50%, 최초기준가격 미만인 경우 연 2.49%를 받는 구조다. 이번 ELB의 모집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12월 결산법인 外人 배당금 6조… 30%↑

12월 결산 법인이 외국인 실질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6조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4% 증가한 수준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도 12월 결산 법인 중 외국인 실질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는 총 940곳으로, 지난해 보다 57곳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배당금은 5조906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3728억원(30.3%) 늘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보다 45.1% 늘어난 1조6400억원을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차(4210억원), 신한금융지주(29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배당금은 129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32억원(34.4%)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GS홈쇼핑(185억원), 로엔엔터테인먼트(123억원) 등의 외국인 배당액이 많았다.

배당금을 받아간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미국(2조5100억원), 영국(5270억원), 룩셈부르크(3720억원), 싱가포르(321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전체의 현금배당 규모는 944개사 15조423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52개사 3조3785억원(28.0%) 늘었다.

전체 배당금의 93.8%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나왔다. 반도체 관련 업종(삼성전자 포함)에서 지급한 배당금은 3조5800억원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

/김소연기자

BC카드 가맹점 개인 사업자 최대 100만원 캐시백

BC카드는 14일 가맹점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벌인다고 밝혔다.

5월 한달간 BC카드로 지방세·국세를 납부한 사업자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변동에도 꿋꿋이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동반 상생'을 지향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며 "카드를 이용하는 회원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역시 소중한 고객으로 앞으로도 가맹점 사장님들께서 보다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벤츠코리아, 실라키스 신임대표 실적 뻥튀기

보도자료 '브라질법인 2배 성장 견인' 허위
재임 당시 6% 그쳐 … 사실상 정체 수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사진)의 브라질법인 재직 당시 실적을 2배로 과장해서 허위로 한국언론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실라키스 대표가 벤츠 브라질법인 대표이사로 지난해부터 재임하며 판매 실적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거의 모든 언론사는 관행상 실적은 거짓이나 허위로 유포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실적 허위공시는 민덕 처벌도 받는다.

벤츠가 낸 허위 보도자료에는 "실라키스 신임 대표는 1992년에 다임러 그룹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스에서 근무를 시작해 승용 상용 부문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경험 능력을 쌓아왔다"며 "메르세데스 벤츠 브라질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현지 판매 실적을 2배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가 재임하기 전인 2013년 34% 성장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연 6% 성장에 그쳤다. 사실상 정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14일 다임러그룹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라키스 대표 부임 후 벤츠 브라질 법인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6% 성장에 그쳤다.

실라키스 대표가 부임하기 전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 지난해 다임러그룹은 브라질 경제 상황을 정부의 FINAME(기계장비 대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수요가 10%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브라질이 속한 남아메리카의 승용차와 상용차의 판매 성장률이 각각 10%, 15%씩 감소했다.

벤츠 브라질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8614대를 팔아 전년 동기(7284대) 대비 판매량이 18%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그가 브라질 시장 내 C클래스와 GLA 모델을 위한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립해 2020년까지 전체 판매량을 4배로 늘리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고 자랑하는 등 그가 한국시장에 마치 구원투수로 등장한 듯 과대 포장했다.

벤츠측은 "그리스와 브라질 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브라질 시장서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장정체의 쓴맛을 본 사장을 한국대표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한국시장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허위 수치와 논리는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이뤄졌거나 알고도 '뻥튀기'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실라키스 벤츠대표의 브라질 재직시절 정확한 실적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안일한 대답을 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뻔뻔한 벤츠 "중대결함? 책임 없다"

S600L 잇단 하자에 환불소송
벤츠, 수리만 되풀이하며 횡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브리타 제에거)의 S600 L 차량(사진)에서 시동꺼짐 등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식딜러사가 이를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S600 L은 벤츠의 대형 세단인 S 클래스의 최상위 모델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더 뉴 S600 L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남경중공업은 벤츠코리아와 그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대상으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사건은 현재 원고인 벤츠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남경중공업은 벤츠파이낸셜에 매월 687만원을 납부하고 S600 L 차량을 36개월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에 관한 하자 담보, 기한 내 보증, 보수, 애프터서비스(A/S) 등은 신성자동차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후 해당 S600 L 차량에서는 시동꺼짐과 정차 중 멈춤, 주행 중 엔진체크등 점등과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에 신성자동차 측은 각종 결함에 대한 조치 후 "차량에서 발생된 증상을 모두 해결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므로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를 찾아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원고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운전자가 해당 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자 엔진체크등이 점등되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서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신성자동차는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독일 다임러 AG 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본사로부터 엔진 컨트롤 배선을 공급받아 교환했다.

그 뒤 "엔진 컨트롤 배선을 교환한 후 수원간 로드테스트 결과 증상 발생이 없으며 엔진 관련 부위의 작동 상태가 모두 정상이므로 자동차를 찾아가라"는 취지로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S600 L의 계속되는 결함을 겪은 원고는 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남경중공업 측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다"며 "차에서 발생한 증상들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에 따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상은 주행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내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하자로 3회까지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다시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보증서에 의한 환급보상을 선택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필기자

벤츠, 리스차 계약 해제 소송도 항소

고장 난 메르세데스벤츠 시설대여(리스) 차량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벤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LK220 4매틱(사진)을 리스한 강 모씨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선 것이다. 뒤따르던 차량이라도 있었으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리스 후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수리 후에도 말썽은 계속됐다.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져 정비를 받거나 견인을 한 것이 세 차례나 됐다. 정비에 각각 35일, 21일, 7일이 소요됐다. 이에 강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 측은 이 매매과정에서 자사의 책임이 없다며 반발했다.

벤츠코리아는 강씨의 리스계약이 한성자동차와 이뤄졌으며 차량은 리스료를 받는 벤츠파이낸셜 소유이므로 사건은 벤츠코리아와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라기자 [illegible]

대한항공, 1분기 '고공비행'

영업익 전년비 787% 증가
여객 전체 수송객 8% ↑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8712억원, 영업이익 1899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9% 줄고 영업이익은 787.4% 대폭 증가한 규모다.

1분기 당기순손실은 13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7억원 개선됐다.

사측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업이익은 유류비 절감과 효율성 확보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899억원을 기록했다.

여객 부문은 한국발 수송객 증가에 따라 전체 수송객이 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노선별 수송실적(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은 동남아노선 12%, 중국노선 9%, 구주노선 6%, 일본노선 4% 등 전 노선에 걸쳐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화물 부문은 지속적인 시장 개척 노력으로 한국발 수송량과 환적 수송량이 각각 6% 늘었다.

노선별 수송실적(FTK, Freight Ton Kilometer)의 경우 미주노선 25%, 대양주노선 21%, 일본노선 1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대한항공 측은 "2분기 여객부문은 5월 황금연휴와 커나큰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화물 부문 또한 미주지역 경기회복과 연계 효과로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필기자 [illegible]

한진해운, 1분기 영업익·당기순익 흑자전환

한진해운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1481억원, 영업이익 1550억원, 당기순이익 229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5% 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규모다.

사측은 전통적 해운업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원가구조 개선 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컨테이너 부문은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으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조967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39억원을 달성했으나 벌크 부문은 시황 부진 영향으로 283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손실폭은 전년 동기대비 23.7% 감소했다.

터미널 사업 등 기타 부문의 영업이익은 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2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정필기자

갤럭시 S6 보안 '구멍'… 삼성페이 안전할까

'핑퐁 루트'로 해킹 성공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 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S6엣지 보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삼성페이'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13일 안드로이드 커뮤니티 등 해외 정보기술(IT) 포럼에 따르면 일부 개발자들은 '핑퐁 루트(Pingpong Root)'라는 툴로 갤럭시 S6·S6엣지 루팅(기기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일종의 해킹)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자들은 갤럭시 S6·S6엣지의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에 영향을 받지 않고 루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 홀에서 열린 갤럭시 S6 월드투어 서울행사에서 금거지기 갤럭시 S6 삼성페이를 시범보이고 있다. /뉴시스

갤럭시 S6·S6엣지를 루팅할 경우 녹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와 관련된 삼성페이 기능도 정지됐다.

그러나 녹스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갤럭시 S6·엣지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 보안업계 전문가는 "루팅이 가능하면 스마트폰 관리자 권한을 얻어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며 "기기 보안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개인정보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시스템의 보안 약점이 발견되면 악성 코드 감염 우려도 있다"며 "(모바일) 금융거래 시 열오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페이는 녹스 1회성 가상번호 토큰·지문인식을 기반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녹스를 우회한 루팅이 가능한 상황에서 1회용토큰과 지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페이는 핀테크(FinTech) 시장 진입을 위한 삼성전자의 승부수다.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미국의 핀테크 소프트웨어 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 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갤럭시 S6·S6엣지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탑재했다.

아이폰 6·6 플러스에 탑재된 애플페이 보다 범용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는 물론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직접 '삼성페이'를 챙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시장 확대에 정성을 쏟고 있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삼성페이의 시장 연착륙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6·S6엣지 삼성페이 보안과 관련해 "현재 루팅을 감시해 차단하는 솔루션이 준비돼 있다"며 "삼성페이는 서비스는 준비 단계인 만큼 보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슬기기자 heft@metroseoul.co.kr

한화, 1분기 영업익 2653억… 전년比 25%↑

금융계열사 이익 실현 효과

한화는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실현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14일 밝혔다.

한화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2653억78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553억600만원으로 89.42% 늘었다. 매출액은 9조233억1100만원으로 0.27%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보험 판매 호조와 더불어 비용절감 효과와 탄력적인 자산운용으로 견고한 수익을 달성한 반면 (주)한화의 자체사업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시측은 제조부문의 계절성 회복 및 제품 믹스 개선 등에 따라 (주)한화의 매출과 손익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란 핵협상 타결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면서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이라크 개발사업도 파이낸싱·추가 수주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소라기자 10sound@

13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삼성 희망의문화클럽 '찾아가는 공연'을 관람 후 다문화가족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 제공

삼성, 문화 소외층에 '찾아가는 공연' 선물

삼성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소외계층을 위한 삼성의 문화 사회공헌 사업인 '희망의 문화클럽' 일환이다.

전날 충북 음성에서 펼쳐진 '찾아가는 공연'에는 지리적 특성상 문화공연 관람 기회가 적고, 한국어가 서툴러 어린 자녀와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을 초청했다.

공연은 1부 팝페라듀오 라보엠을 시작으로 '시네마 콘서트', '다도 기수다', '범퍼하는 음악회'로 진행됐다. 2부에는 퓨전타악그룹 슈퍼스틱이 대북, 아프리칸 타악기 등의 다양한 악기로 화려한 볼거리와 유쾌한 무대를 선보였다.

삼성의 찾아가는 공연은 13일 충북 음성(다문화가족)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시각장애인), 경북 안동(한센인), 충북 옥천(노인/장애인), 경기 의왕(초·중·고교생) 총 5개 지역에서 모두 11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조한송기자 h…@

삼성전자-中企, 재난안전망 상생 맞손

삼성 기술개발-마케팅 지원 협력사 품질보장·적기 납품

삼성전자가 14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국내 중소협력사들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 삼성전자와 함께 에이스테크놀로지, 케이엠더블유, 티아이스퀘어 등 15개 통신장비분야 중소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재난망 관련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품질 보장과 적기 납품에 힘쓰기로 했다.

재난망은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안전장치이다.

정진수 삼성전자 전무(왼쪽)와 에이스테크놀로지 구관영 대표이사가 14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지국 분야의 유일한 국산 장비업체로서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시기부터 국내 이동통신 중소업체들과 협력해 왔다.

정진수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무는 "공공망으로써 세계 최초 LTE 기반으로 구축되는 이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기회로 국내 이동통신업체가 다시 한 번 앞서다가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훈기자 ssew@

현대차, 70쌍 초청 광복 70주년 이색여행

현대자동차는 명사와 함께 떠나는 이색 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현대차 보유 고객이면 누구나 이날부터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으로 선정된 고객 70쌍(부부동반, 주제별 35쌍)은 대한민국 명사와 함께 1박 2일 일정의 여행을 하게 된다.

첫 번째 테마는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는 '독립운동 시간여행'이다. 6월 1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두 번째 테마는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근현대사 문화여행'이다. 6월 8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35명씩 6월 4일, 11일 테마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예윤썸기자 roman@

대한항공, 대한적십자 네팔 구호품 무상수송

대한항공이 네팔 이재민 구호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품의 무상수송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네팔에 보낼 약 35t의 긴급 구호품을 무상으로 수송하게 된다.

사측은 이번 수송에 약 1억원 상당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장소라기자

1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오른쪽)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네팔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품 무상수송 지원을 약속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냄새·질염… 여성 청결제로 편안하게

여성들에게 화장품만큼 가까운 것이 바로 여성청결제와 입술 보호제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꼭 써야 하는 필수품은 아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먼저 어떤 경우에 여성청결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등 여성청결제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다음으로 입술 보호제는 언제 어떻게 바르는 게 효과적인지, 자신에게 맞는 입술보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락틱애시드'성분 유해균 증식 막아 너무 잦은 사용은 유익한 세균 죽여

여성청결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사라 교수는 "건강하고 질염이 없는 여성들은 굳이 여성청결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질염이 잘 생기는 경우에는 여성청결제를 사용하면 좋다"고 말한다.

여성의 질은 약산성(pH 4.5~5.5)일 때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 하지만 너무 잦은 질 세정제의 사용은 유익한 세균까지 모두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성 질염에 감염되기 쉽다. 이처럼 질염이 잘 생기는 경우는 약산성의 수치가 올라가 알카리성 환경이 되면서 발생한다.

이 교수는 "곤동 대신 루프를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약산성 환경이 깨지고 세균성 질염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또 폐경일 경우에도 산도가 올라가 불편하게 된다. 그리고 지노 베타딘 같이 강한 여성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약산성을 씻어내기 때문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교수는 "알카리성 비누 역시 같은 이유로 사용하면 안 좋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성청결제는 건강한 여성도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나 곰팡이 균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약산성(pH 4.5~5.5)으로 유지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락틱애시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 교수는 "질에 유산균이 있듯이 여성의 질 내에도 락토바실루스균이 살고 있어 글리코겐을 젖산으로 분해해 약산성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며 "이들 좋은 균이 유해 세균을 쫓아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체 면역력 약해나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질 내 환경을 이루고 있는 균형이 깨질 경우 유해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게 되고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가장 흔히 걸리는 세균성 질염도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다. 세균성 질염에 걸리면 질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약간 누렇거나 회색을 띠는 냉 대하증과 함께 심하면 생선 비린내가 난다.

이런 경우 여성청결제를 사용하면 질염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중에는 티슈, 액제, 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소독보다는 청결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들이다.

이 교수는 끝으로 "소아나 어린 아이는 아직 미성숙해 에스트로겐화가 안된 상태라 유산간균이 부족한 경우 질분비물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배변 후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 습관(genital hygiene)을 교육하고 청결제는 유산간균인 락토바실리우스가 포함된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착선기자 chisun@metroseoul.co.kr

약산성 여성용 청결제 '클레어테라피 클레어진'

질 내 산도유지·보습효과 유소아 임산부도 사용 가능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이 여성용 청결제 클레어테라피 클레어진(Clair-Gyn)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약품이 런칭한 약국화장품 브랜드 '클레어테라피'의 두번째 제품. 한미약품은 지난해 입술보호제 '클레어테라피 립에센스'를 출시한 바 있다.

클레어진은 질 내 산도를 약산성(pH 4.5~5.5)으로 유지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락틱애시드' 성분과 보습효과에 뛰어난 히알루론산과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장미꽃 추출물이 함유돼 질내 분비물 및 생리혈로 인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고,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을 사용함으로써 유소아부터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클레어진은 민감한 여성의 외음부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저자극 여성청결제"라며 "특히 스트레스, 타이트한 하의 착용 등으로 질염에 노출되기 쉬운 젊은 여성 등에 유용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진은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대표이사 남궁광,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되며,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한 RFID가 부착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르고 트는 입술 '립에센스'로 챙기세요"

시도 때도 없이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면서 거북이 등처럼 트는 시기가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매력적인 입술을 유지하기 위해 입술이 트는 것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입술이 트거나 건조해질 때는 피부건조에 바르는 보습제처럼 립에센스가 효과적이다. 이대목동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최혜영 교수는 "입술이 자주 트는 경우에는 보습효과가 좋은 립에센스나 립밤을 발라주는 게 좋다"면서 "화장품처럼 접촉성 피부염 즉, 알레르기반응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최 교수는 "만약 포진인 경우 계속 사용하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부에 맞는 화장품처럼 입술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술이 아주 심하게 건조한 경우에는 기름이 많은 지성용이 좋다. 또한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부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첨유된 제품이 효과적이다.

한미약품에서 이번에 출시한 클레어테라피 립에센스는 피부 보습을 유지해주는 히알루론산과 비타민E, 피부진정 및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과 센텔라아시아티카, 알란토인 등의 성분으로 구성

돼 있다. 특히 판테놀의 경우 경쟁 제품에 비해 두 배 많은 함량(5%)이 들어 있다.

또한 민감한 입술에 자극감을 주는 파라벤 변조제는 인공색소, 미네랄오일 등이 함유돼 있지 않아 안심 사용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바닐라향으로 남녀노소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은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대표이사 남궁광,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범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호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순할수록 잘 나간다… 전국 '저도주' 열풍

'처음처럼 순하리' 불티 지역 소주도 앞다퉈 내놔

전국에 저도 소주 바람이 불고 있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지난 3월 선보인 14도 소주 '처음처럼 순하리'가 주류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자 앞 다퉈 뛰어드는 모습이다.

14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처음처럼 순하리'는 출시 한 달만에 150만병이 판매됐다. 이 제품은 360ml에 알코올 도수 14도로 천연 유자 농축액이 함유돼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저도주 바람이 거셌던 부산·경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출시된 제품이지만 젊은 여성과 대학생 등에 인기를 얻으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주류는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처음처럼 순하리'의 생산량을 늘리고 이달 말부터 수도권 지역으로 판매망을 늘리기로 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현재는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추가로 물량을 확대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처음처럼 순하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표 소주업체인 금복주도 18일 유흥주점을 시작으로 알코올 도수 14도의 '유자 순한 참' 소주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처음처럼 순하리'와 같은 도수로 기존 '더 순한 참'(16.9도)보다 2.9도 낮다. 유자과즙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금복주 관계자는 "최근 주류시장에서 저도 소주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 맞춰 금복주에서도 '유자 순한 참'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무학도 지난 11일 알코올 도수 13.5도의 '좋은데이 레드·블루·옐로우' 3종을 선보였다. 경쟁 제품보다는 0.5도 더 낮다. '좋은데이 블루'는 블루베리, '좋은데이 레드'는 석류, '좋은데이 옐로우'는 유자 과즙을 각각 첨가해 특유의 과일 맛을 살렸다.

무학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성에 따라 다양한 주류를 선택해 즐기는 트렌드를 고려해 출시하게 됐다"며 "톡톡 튀는 색과 맛을 강조해 마케팅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보해양조도 최근 알코올 도수가 17.5도인 '잎새주 부라더' 소주를 출시했다. 금복주의 '유자 순한 참'과 무학의 '좋은데이'보다는 도수가 높지만 기존 '잎새주'(19도)에 비해 1.5도 낮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저도주 열풍이 불고 있지만 부산·경남 보다는 더 높은 도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17.5도의 '잎새주 부라더'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홈플러스, 돌게·홍게 일주일간 특가 판매 14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모델들이 돌게와 홍게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제철 돌게와 홍게를 특가에 판매한다. 가격은 1080원(100g)으로, 20일까지 돌게 900g 이상 구매 시 게장용 간장소스(1kg)와 게장용 통을 함께 증정한다. /홈플러스 제공

"이엽우피소, 안전성 판단 못해"

식약처·독성학회 "최대 2년 있어야 결론… 섭취 말아야"

'가짜 백수오'로 둔갑한 이엽우피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독성학회(회장 조민행 서울대 교수)가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14일 한국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열린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백수오로 둔갑해 판매된 일명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간(肝) 독성, 신경독성, 혈액독성 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중국·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엽우피소가 식품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식약처와 독성학회의 입장이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독성학회 최경철 학술위원장(충북대 수의대 교수)은 "실험동물(쥐)을 사용해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을 밝힌 중국의 연구논문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이엽우피소를 쥐에게 먹이는 등 연구 자체의 허점이 여럿 확인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이엽우피소를 과하게 주입해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과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연구결과 역시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은 중국 난징 철도 의과대학이 1998년 발표한 것으로 유일한 이엽우피소 독성 연구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이엽우피소에는 간독성, 신경독성과 혈액독성이 있으며 과하게 투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소수만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5년 전부터 이엽우피소를 복용해 왔지만 아직 독성시험이 실시된 적은 없다.

식약처는 아직 정확한 독성시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자영 독성연구과장은 "당장 급하게 독성시험을 시작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짧아도 6개월, 길게는 2년 후에나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보현기자 minus@

남성정장 '그린프라이스제' 유명무실

롯데百, 시즌오프 당겨 온라인 통한 반값 할인도

남성 정장 가격의 거품을 빼고 연중 상시 진행된 비정상적인 할인판매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그린프라이스' 제도(가격 정찰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프라이스 제도는 지난 2007년 롯데백화점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부터 제일모직, FnC코오롱, LF패션 등 남성 정장업체들이 뒤따라 다른 백화점 매장과 가두점에서 파는 제품 가격도 정가를 평균 30% 가량 낮추며 자리잡는 듯 했다. 그린프라이스가 적용되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기 때문에 정해진 세일 기간 외에는 할인을 할 수 없다.

하지만 14일 기자가 소공동 위치 롯데백화점 본점 5층에 있는 한 남성정장 매장을 취재한 결과 주요 남성 정장 브랜드들이 정기 세일이 아닌 기간임에도 10~30% 추가 할인을 하고 있었다.

LF의 라이선스 브랜드 '닥스'는 매장 입구에 5월 한 달간 일부 품목에 한해 20~30% 할인해준다는 안내판을 세워 뒀다. 판매직원은 "시즌 오프 할인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 이 행사가 끝나면 다음 시즌 오프 기간동안엔 세일을 하지 않는다"며 당장 구매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제일모직의 '로가디스'도 일부 제품에 한해 시즌 오프를 미리 당겨 20% 할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격표나 매장 내부 어디에서도 할인 안내 공지는 없었다.

롯데백화점 측은 "현재까지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백화점 정기세일도 있어 특별히 할인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며 "브랜드 자체에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시즌이 지난 일부 제품을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린프라이스를 별도로 진행했던 브랜드들도 아웃렛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FnC는 지난 2012년 할인점에서 판매하던 남성 정장 브랜드 '지오투' 가격을 30% 낮춰 정찰제에 판매하는 '클린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현재 온라인에서 최대 반값 할인이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30% 가량 할인 적용된 '웰빙프라이스' 제도를 시행 중인 LF 타운젠트 역시 온라인 몰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될 시점은 불경기라 할인이 필요한 시기였다"며 "지금은 정장 시장이 많이 죽어 그린프라이스처럼 할인 제도가 통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에 따라 제도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t215@

이랜드, 부산 서면에 도심형 아울렛 오픈

패션·외식브랜드 205개 입점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부산 서면에 도심형 아울렛을 오픈한다.

이랜드는 21일 이랜드리테일의 50번째 유통 점포이자 부산 지역 5번째 점포인 도심형 아울렛 콘셉트의 NC서면점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NC서면점은 4만3953m2 규모로 지상 6개 층으로 이뤄졌다. 180개 패션브랜드와 25개 외식 브랜드 등 총 205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직수입 편집숍 NC픽스에서는 폴로와 갭·DKNY, CK, 마이클코어스 등 40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기존 백화점 제품보다 70~80% 가격에 판매한다.

라이프스타일숍 모던하우스도 역대 최대 규모인 [illegible]m2로 입점한다. 본사와 리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패스트리빙 라이프스타일숍 버터도 부산 최초로 선보인다.

냉면 전쟁… 더위 사냥 나섰다

CJ제일제당·농심 등 전문점 뺨치는 제품 출시 여름 입맛잡기 총력 나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품업체들의 '냉면전쟁'이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들은 전문냉면점 맛 뺨치는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여름 입맛 사냥에 나섰다.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내놓고 여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의 맛·품질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아 냉면 시장 1위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신제품 '제일제면소 속초 코다리냉면'과 '제일제면소 메밀 막국수'를 선보였다. 속초 코다리냉면은 속초 명물인 코다리냉면을 그대로 재현한 제품으로 쫄깃한 코다리가 넉넉하게 들었다. 메밀막국수는 면 전문점 '제일제면소'의 여름 시즌 메뉴인 막국수를 그대로 구현됐다.

기존 제품의 리뉴얼도 단행했다. 동치미 물냉면과 매콤 시원한 동치미 물냉면, 함흥 비빔냉면 등 총 3종의 냉면 제품의 맛 및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제품 대비 면발의 메밀 함량을 약 두배 높이고 나트륨 함량을 15% 이상 절감했다.

농심은 면과 국물 맛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둥지 물김치냉면'과 '둥지 비빔냉면'을 새로 출시했다. 두 제품의 면발은 다시마 분말을 넣어 냉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강화했다. 배추와 무·표고버섯·당근·미나리·마늘 등을 넣어 발효시킨 물김치 국물을 추가한 육수와 비빔장이 특징이다. 농심은 이들 통해 16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가정용 냉면은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 1인 가구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들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냉면시장 규모는 430억원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온 데다 이른 무더위가 예보되고 있어 냉면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맛·품질을 향상시킨 차별화된 콘셉트의 제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해 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라기자 boraf@@metroseoul.co.kr

百, 불황에 명품 반값 할인

시즌오프 물량 최대 30% ↑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15일부터 해외명품 시즌오프(계절마감 할인) 행사를 연다.

예년 진행하는 행사지만 불경기로 명품 매출도 내림세를 보이자 참여브랜드가 늘어나고 할인폭도 커졌다.

롯데백화점은 이날부터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198개 해외명품 브랜드의 시즌오프 행사를 하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참여 브랜드는 지난해 봄 행사보다 43개 늘어 총 198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15일 마이클코어스·모스키노·레베카밍코프 등 3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22일 코치·에트로·멀버리·투미·프라마클라쎄·스튜어트와이즈먼 등이 참여한다. 29일에는 토즈·마크제이콥스·에스티듀퐁·CH캐롤리나헤레라·린조 등이 시즌오프 상품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도 이날부터 해외패션 브랜드의 시즌오프 행사를 열고 최대 30% 할인한다. 참여 브랜드는 전년에 비해 30여 개 늘었다.

15일 마이클코어스·레베카밍코프 등 3개의 브랜드를 시작으로 22일 멀버리·코치·비비안웨스트우드, 29일에는 끌로에·랑방·토즈·마크제이콥스 등이 참여한다.

해외 패션 브랜드의 이월상품 할인 행사도 연다. 무역센터점은 18~21일 질샌더 '그룹 패밀리 세일'을 열어 질샌더·에르마노설비노·폴 키 등의 브랜드 제품을 50~70% 저렴하게 판다. 압구정본점은 19~21일 '수입의류 특집전'을 통해 지연달모다·존스에듀라·나라카미체 등 8개 브랜드 이월상품을 30~5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명품관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0여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올해 봄·여름 시즌 제품을 정상가보다 20~40% 할인 판매한다.

15일 명품 구두 브랜드 펜디·살바토레페라가모는 40%, 에르메네질도제냐(?) 컬렉션은 30%, 22일부터는 블루마린·미우미우·브라넬로 등이 30%, 셀린·필립플레인이 20~30% 할인에 나선다.

/정은미기자 21cindy@

팔도 "왕뚜껑 속 하트면 찾아라" 팔도는 1990년 출시 이후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왕뚜껑'에 대한 고객 감사의 일환으로 '뚜껑 속 하트면을 찾아라' 이벤트를 벌인다. 5월부터 8월까지 왕뚜껑·김치왕뚜껑·짬뽕왕뚜껑 등 3종 제품속에 들어 있는 하트 모양의 면을 찾는 고객에게 경품을 준다. /팔도 제공

성별·성향 맞춤 정보… 쇼핑 피로도 '뚝'

#직장인 염모(28·남)씨는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지만 최근 너무 많은 상품 정보에 오히려 쇼핑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최근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이 운영하는 11번가(www.11st.co.kr)의 맞춤형 큐레이션 쇼핑 서비스 '쇼킹딜 3.0'을 이용하면서 뚜렷한 이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11번가가 지난 3월 선보인 '쇼킹딜3.0'이 온라인 쇼핑을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쇼킹딜3.0'은 고객별 맞춤 쇼핑 서비스를 선보이고 콘텐츠를 강화해 차별화된 큐레이션 쇼핑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과잉 속 선택, 결정이 어려운 이른바 '결정장애'를 지닌 소비자의 쇼핑 피로도를 낮춰주는 고객맞춤형 쇼핑을 실현하고자 한 것.

쇼핑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강화한 신규 코너들로는 '뭘 살까', '뭐먹지', '브랜드딜', '트렌드가 있다'. 그 중 단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는 '뭘 살까' 코너다. 최신 쇼핑 트렌드와 이슈 상품을 추천해줘 소비자들의 쇼핑 피로도를 낮춰준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11번가 '쇼킹딜3.0' 선택장애 소비자에 인기

'뭘 살까' 코너의 가장 큰 특징은 테마별 설정을 통해 각 상황에 어울리는 쇼핑목록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결혼식', '주말 나들이', '생리용품' 등 테마가 나눠어 있어 '목적성 구매'를 위해 쇼킹딜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

또 하루 2회 담당의 이슈와 트렌드를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상품들을 SNS 형태의 대화형으로 재미있게 추천해 준다. 최근 이슈였던 '어벤져스2' 테마에 들어가면 인기 피규어부터 캐릭터 속옷까지 '어벤져스'로 묶어는 관련 상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뭘 살까' 코너는 또 본인의 성별, 나이, 쇼핑성향 등과 유사한 다른 고객들의 쇼핑목록을 제시해 준다. 쏟아지는 정보에 상품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는 일명 '햄릿형 소비자'들에겐 안성맞춤 서비스다. 해당 카테고리 내 적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제시해 쉬보다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쇼킹딜 3.0'은 기존보다 상품수를 67% 늘린 2만5000여 개로 더욱 풍성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 쇼핑딜에서는 유통업계 처음으로 '고객별 맞춤 쇼핑' 서비스를 선보이고, 정보과잉 속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이른바 '결정장애'를 지닌 소비자의 쇼핑 피로도를 낮춰주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中 크루즈선, 한국 첫 입항

관광公, 내일 환영행사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오는 16일 오후 1시 제주에 처음 입항하는 중국 천해크루즈의 'Skysea Golden Era'호(사진) 입항 환영행사를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항에서 실시한다.

천해크루즈는 HNA Cruise(Henna호), 발해륜도유한공사(중화대신호)에 이어 중국의 3번째 국적 크루즈 선사이다. 입항 예정인 Skysea Golden Era호는 총 7만2000 톤(승객 1814명, 승무원 860명 규모)으로, 이번 입항엔 약 1500명의 승객이 승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5박 6일이며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제주도를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상하이로 귀항한다. 올해는 약 60여 차례에 걸쳐 제주, 부산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환영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가 공동 실시하며 선사 대표 등에게 한국 취항 기념패를 전달하고 방한객 대상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박아라 크루즈교통팀장은 "이번 천해크루즈의 입항은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 크루즈관광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해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카카오' 모바일게임시장, 네이버가 진격

'for Kakao' ↓, 'with Naver' ↑

모바일 게임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카카오 게임하기'가 등장 3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상위에 랭크되던 'for kakao'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with naver'가 1위 자리를 차지하며 네이버의 플랫폼 마케팅 협공이 거세다.

14일 '카카오게임하기' 지표를 살펴보니 400여개의 파트너사가 11개 장르 630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약 4700만명이 5억 건 이상의 게임을 설치했다. 다운로드 1000만을 돌파한 게임도 5개사 10개 게임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의 성장을 주도해온 다음카카오의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최대의 IT기업인 네이버가 탈카카오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네이버는 넷마블게임즈와 힘을 합쳐 모바일 게임 '레이븐'이 흥행했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주요 앱마켓 인기 1위를 휩쓸었다. 현재 카카오 게임하기에서도 선보이고 있지만 네이버와 손잡고 진행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레이븐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넷마블게임즈의 자기작 크로노 블레이드 역시 네이버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흥행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NHN엔터테인먼트의 신작 모바일 RPG '갓오브하이스쿨'도 사전등록 신청자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상반기 중 모바일 웹툰 서비스에서 해당 웹툰 게임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웹툰 게임하기' 기능을 선보인다.

이런 네이버의 전략으로 실제 구글플레이에서 인기게임 10위권안에 든 게임중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작품은 2개에 불과하다. 과거 거의 대다수 게임이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네이버는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실적에서 콘텐츠 매출이 모바일 게임 레이븐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2% 상승한 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앞으로 모바일 검색 건수가 PC 검색을 앞지른 상황에서 네이버가 게임을 내세워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모바일 게임 플랫폼 '카카오톡 게임하기'에서 신작을 선보이는 횟수를 주 2회에서 주1회로 줄였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무려 1년반만의 변화다. 매주 화·금 2차례 신작을 발표했던 카카오톡 게임하기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주 1회만 노출해 신규게임의 홍보 마케팅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서 최근 미묘하게 감지되는 '탈카카오'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카카오 플랫폼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여에 새로운 게임 유통 채널인 '카카오게임샵'을 통해 앱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기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의 앱장터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게임샵을 통해 게임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다음카카오 '검은사막' 실적 급부상

카카오게임 성장은 둔화

다음카카오가 대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이 이끄는 모바일 게임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게임 시장의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게임산업 진출로 사업다각화를 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는 셈이다. 다음카카오는 연결기준으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4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3%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 실적 비교를 하지 않고 직전분기와 실적을 비교해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44억원으로 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308억원으로 40.4% 줄어들었다. 플랫폼별로 광고 매출이 141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줄어들었다.

게임 매출은 7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 늘었다. 모바일 매출은 51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 줄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다음게임의 MMORPG '검은사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온라인 게임 매출이 11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검은사막의 경우 유료화 전환 일주일 만에 23억원의 결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의 성장은 둔화됐으며 '검은사막'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8개의 게임을 제공 중이며 라인업은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중국내 첫 퍼블리싱 게임인 한류음원게임 '슈퍼스타 SM타운'도 2분기 내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지난 4월 1일 게임유통채널인 '카카오게임샵'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3차 오픈을 통해 세븐나이츠, 모두의 마블, 영웅 등 28종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넥슨 1분기 영업익 2048억… 모바일게임 힘 보태

'탑탱' 등 분위기 업 / 던전앤파이터 中 점령

글로벌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대표이사 오웬 마호니)은 도쿄증권거래소를 통해 14일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 이익은 2048억원(엔화 기준 222억 1900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당사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 호조와 마케팅 비용 및 인건비 지출이 예상보다 낮았던 점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넥슨 측은 설명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4790억원(519억 7200만 엔), 1709억원(185억 3900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15% 증가했다.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매출이 21% 가량 성장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PC 온라인 게임 매출액은 436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84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네이티브 앱 게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8배 성장한 46억 엔을 기록했다. 중국·한국 지역에서 설 연휴부터 지난 3월까지 이어진 매출 호조가 매출 상승에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넥슨은 올 2분기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 넥슨의 2분기 예상 매출액은 403억 엔에서 430억 엔이며 예상 모바일 매출은 102억 엔에서 112억 엔, 예상 영업이익은 88억 엔에서 111억 엔, 예상 순이익은 72억 엔에서 95억 엔이다.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는 "지속적으로 게임 퀄리티에 집중한 사업 전략이 주요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던전앤파이터'의 신규 업데이트가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한국에서는 치열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PC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자사의 사업 전략에 순항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분기 중 스퀘어에닉스와의 '파이널 판타지 11' 모바일 버전 공동 개발 및 텐센트를 통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 퍼블리싱 등 주요 계약을 체결했으며 북미·유럽 지역에 론칭한 '도미네이션즈' 역시 긍정적인 조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15년을 기점으로 이후 선보일 고퀄리티 신작들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illegible]기자

엔씨소프트문화재단, LA 스페셜올림픽 대회 홈페이지 개설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2015 로스앤젤레스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의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한국 선수단 후원 파트너인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현지에서 단체 응원과 문화 체험 등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특별 가족 프로그램에 참가할 선수 가족도 선발했다.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한국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 ▲스페셜올림픽의 개요과 비전 미션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개요 ▲격려 응원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는 대표선수 96명의 성장과 훈련 과정을 담은 개인 영상으로 매주 새롭게 나온다. 1차로 농구 민현식, 수영 김정연, 배드민턴 김혜경 선수 등 여섯 사례가 소개됐다.

신규 오픈을 맞아 격려 응원하기 이벤트도 벌인다.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대표 선수들을 격려·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10주 동안 매주 7명, 총 70명을 추첨해 LA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공식 로고가 들어간 물병을 선물한다. /[illegible]기자

metro entertainment

"스릴러 전문? 엄마 팬에게 돌아가야죠"

악의 연대기 손현주

드라마 '추격자' 이후 손현주(50)의 필모그래피는 한층 묵직해졌다. 옆집에 사는 푸근한 이웃 같았던 그는 어느 순간 재벌이나 대통령을 연기하고 있었다. 작품에 무게감이 더해질수록 그의 연기도 진중함을 더해갔다.

2년 만의 영화인 '악의 연대기'(감독 백운학)에서도 손현주의 묵직한 연기는 계속된다. 영화는 승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람을 죽인 경찰서 강력반장의 이야기를 그린다. 손현주가 주인공인 최창식 반장이다. 출세를 위해 사체를 은폐하지만 그 시체가 건설현장 크레인에 매달린 채 나타나면서 최 반장은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스릴러답게 영화는 볼품 액션과 추격전 등 액션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손현주는 "나는 평범하게 찍어서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진짜 뛰는 것처럼 보여 나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비밀을 숨겨야 하는 캐릭터 특성상 현장에서도 고독을 마주하며 감정에 빠져들어야 했다. 촬영 전 받은 갑상선암 수술로 인해 동생 같은 후배 배우들과 술잔을 기울인 기회도 많지 않았다. "촬영하는 동안 나 자신을 철저 고독으로 만들어준 몸에게 감사하다"는 그의 농담에는 현장에서 느낀 남모를 고충이 숨어 녹아 있다.

'악의 연대기'에서 손현주는 대사보다 눈빛연기를 많이 했다. 사람을 죽인 뒤 112에 전화를 하려던 최 반장이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느끼는 복잡한 심정은 손현주는 수심 깊은 표정과 눈빛으로만 오롯이 담아냈다. "감독님의 디테일한 디렉션 때문에 힘들었어요. 카메라도 고정된 앵글로 얼굴을 잡는 장면이 많았고요. 감독님이 '분노 슬픔 좌절 배신 등의 감정은 눈으로만 표현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정말이지… (웃음)"

승진 전 살인범된 죄반장役
늘 고독 마주하는 연기, 고통

현실과 타협하는 인생 비슷
과거 자신 잊지 않기 위해
대학로시절 순수함 되새겨

사건의 거대한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최 반장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세속적인 때를 타기 전 순수한 열정을 가진 자신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잊고 보면 최 반장처럼 과거의 자신을 잊고 현실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간다. 손현주는 "나 역시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며 살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다만 과거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 한 구석에는 배우의 출발점이 된 대학로 시절을 늘 떠올린다. 그리고 후배들을 끌어준다. "단막극 드라마는 재능 있는 배우·작가·감독의 등용문"이라며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영화 내내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손현주지만 단 한 장면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다. 영화 초반 최 반장이 후배 형사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신이다.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환한 미소를 짓는 손현주의 모습은 짧은 순간이지만 보는 이에게 잊게 모르게 반가움을 남긴다. '추격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친근하고 푸근한 손현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봤더니 제가 마치 취식 같은 느낌의 드라마나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좋아해준 어머니, 고모, 이모 팬들로부터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웃음). 다음 작품도 스릴러이기는 한데요. 제가 스릴러 전문 배우도 아니고 어머니 팬도 그립네요. 이제는 예전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호호호비치 제공

Star bag

10개월 만에 '인 러브' 발표

걸그룹 **카라**가 오는 26일 미니 7집 '인 러브'를 발표한다. 미니 6집 '데이 앤 나이트'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개된 컴백 디저 사진엔 립스틱, 목걸이, 꽃 등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카라는 새 앨범 발매에 맞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연다.

내달 단독 콘서트 '럭키데이'

가수 **인순이**가 내달 1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럭키데이'를 공연한다. '럭키데이'는 인순이가 직접 지은 공연 타이틀로 '오는 하루만이라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하자'는 의미다. 특히 직접 제안한 새로운 편곡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달부터 아시아 3개국 팬미팅

배우 **지창욱**이 내달 20일 홍콩을 시작으로 일본·대만에서 아시아 3개국 팬미팅 '디스 이즈 JCW'를 진행한다. 지창욱 측은 "이번 투어를 통해 그동안 보여준적 없는 지창욱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창욱은 팬미팅 준비와 함께 뮤지컬 '그날들' 전국 투어 중이다.

중화권 국민 첫사랑 예약

배우 **홍수아**가 중화권 국민 첫사랑 자리를 예약했다. SBS 드라마 '삼측자'등(2013) 중국 리메이크 작품 '억만계승인'에서 재벌2세 최시원의 첫사랑 역할이 역을 맡았다. 중국 대작드라마 '은주두가족'에서도 첫사랑을 연기할 예정이다. 대륙의 첫사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GV 아트하우스, 배급까지 영역 확대

다양성 영화 발굴 중점
영화계 상생 사업 활발
대기업 시장잠식 우려도

한국 영화 시장은 2년 연속 2억 관객 시대를 맞이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영화계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여전하다. 그 중심에는 영화 시장의 '갑'인 극장이 있다. 스크린 독과점과 영화의 다양성 논란 등이 터질 때마다 그 화살은 늘 극장을 향한다. "극장만 돈을 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화계가 극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다.

극장 입장에서는 영화계의 이 같은 시선이 못내 서운할 수밖에 없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 때마다 극장은 관객의 수요를 이유로 들지만 영화계 내부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화와 산업이라는 영화에 대한 상반된 시선 속에서 영화계와 극장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내 멀티플렉스 체인 중 시장 1위인 CJ CGV는 "상생 경영을 통한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문화소외지역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나눔의 영화관', 국내에서 해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영화창작 교육 프로그램 '토토의 작업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등은 영화를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문화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 영화 시장의 상생을 위한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다양성 영화 브랜드인 CGV 아트하우스다. '인디영화관'에서 '무비꼴라쥬'를 거쳐 지금에 이른 CGV 아트하우스는 현재 전국에 총 21개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네마톡'과 '아트하우스 데이', '이달의 배우' 기획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해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배급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한공주'를 시작으로 올해는 '차이나타운', '무뢰한', '극적인 하룻밤' 등의 배급을 담당했다. 김혜수·김고은, 전도연·김남길, 윤계상·한예리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이지만 제작비는 대형 상업영화에 못 미치는 중·저예산 규모의 작품들이라는 것이 CJ CGV 측의 설명이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 폭스사가 독립영화를 제작·배급하기 위해 만든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 같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 CGV 아트하우스의 장기적인 목표다.

그러나 CGV 아트하우스가 영화계 상생의 교두보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영화계 내부에서는 CGV 아트하우스가 영화 배급에 뛰어든 것을 놓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화 시장의 수직계열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자·제작·배급 등 영화 제작 전반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문화적 가치보다 경제 논리가 영화 시장을 더욱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 CGV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CJ CGV 홍보팀 조성진 팀장은 "CGV 아트하우스가 배급까지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중·저예산 영화를 중심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CJ CGV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토토의 작업실'

CJ CGV의 다양성 영화 브랜드인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CJ CGV 제공

구글, 한국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10개 기관 파트너 추가 계약
박수근作 등 기가픽셀 구현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가 한국의 문화를 온라인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음반산업협회 등 10개의 기관이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 새로운 국내 파트너가 됐다.

아밋 수드(Amit Sood)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 총괄은 14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경험하고 예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컬처럴 인스티튜트를 소개했다.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는 구글이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서비스 사이트다. 현재 전 세계 63개국 7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6만여 개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

아밋 수드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로 보급하고 확산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나라"라고 한국 파트너를 추가하는 이유를 밝혔다.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 총괄 아밋 수드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제공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현대미술관 직무대리 김정배 기획운영단장은 "미술 쪽에도 한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파트너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는 이번에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강익중의 '포타슘 랜슬', 덕온공주의 '원삼' 등 총 여섯 점을 기가픽셀로 구현했다.

'박물관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트리트 뷰를 통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박물관 내부를 실제 다니며 감상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유리기자 yul@

임흥순 "친절한 영화 아니지만 노동자 공감대"

한국인 최초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
'위로공단' 2년 간 65명 노동자 만나 기록

"구로공단에 있던 '그 많던 공순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둔 다큐멘터리 영화 '위로공단'의 임흥순(46) 감독은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은 질문에서 작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감독은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국제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홀수해에 열리는 미술전에서 은사자상 수상자는 본전시에 초대된 35세 이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임 감독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고 미술 작품이 아닌 영화로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임 감독은 "어머니는 봉제공장 시다로, 동생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했고 형수님은 현재 보험설계사로 감정노동을 하는 분이다. 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꼈던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니 그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여동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아시아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위로공단'은 영화와 미술의 경계에 서 있는 작품이다. 간담회에 앞서 상영된 8분짜리 요약 영상은 이 같은 특징을 잘 담았다. 노동자 인터뷰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몽타주는 하나의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임 감독은 "영화는 관객을 끌어들이게 만들지만 난 미술 작업도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영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보길 바란다. 친절한 영화는 아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30·40대 여성은 많은 공감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위로공단'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임흥순 감독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전설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5월 21일 |목| 밤 9시 40분 첫방송

빗물에 미끄러진 권혁 보크 "폭우 미워요"

스포츠 주간 해프닝

12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5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한화가 5-4로 아슬아슬하게 1점 리드한 상황에서 9회말 마운드에 오른 한화 마무리 권혁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애를 먹었다. 선두타자 최형우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해 큰 산을 넘는 듯 했지만 빗물과 진흙이 그의 투구를 끊임없이 방해하며 박석민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다.

이어 이승엽을 상대한 권혁은 두 스트라이크 노 볼에서 삼구째 투구를 하다가 갑자기 마운드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보크까지 범했다. 아슬한 바였다.

1루주자 박석민은 2루까지 향했지만 다행히 이승엽을 땅볼 처리하고 박한이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 진땀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챙겼다.

흙으로 뒤범벅된 권혁의 스파이크

3루를 향해 몸을 날리고 있는 이용규

1루 심판과 충돌하는 박지규

이용규 달려도 너무 달렸다

12일 삼성-한화 경기에서는 권혁 외에도 재미있는 장면이 많았다.

1회 한화 1번타자 이용규는 내야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간 뒤 3번타자 김경언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치자 3루로 내달렸다. 빨빡은 이용규의 여유있는 세이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용규는 자신의 빠른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3루 베이스를 스쳐 지나갔다. 결국 박찬도의 송구를 받은 3루수 박석민에게 태그아웃 당하고 말았다. 1사 1, 3루 상황이 순식간에 2사 1루로 변했다.

이용규는 억울한 듯 한참동안 3루 베이스를 떠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봤다. 4번타자 최진행이 우중간 안타를 날려 이용규의 주루사는 더욱 아쉬웠다.

박지규 1루 심판과 충돌

10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LG 트윈스 경기. 1-1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6회말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KT 3번타자 하준호가 LG 선발 루카스를 상대로 절묘한 기습번트를 시도했다.

공은 1루 선상을 따라 흘러갔고 LG 1루수 정성훈이 뛰어나오며 공을 잡아 재빨리 1루로 송구했다. 루카스의 커버 플레이는 이미 늦은 상황. 이때 2루수 박지규가 커버 플레이를 들어가지만, 공만 보고 뛰어가던 박지규는 1루 심판과 충돌한 뒤 넘어지고 만다. 충격이 상당했던 듯 박지규는 한참동안 고통을 호소했고, 1루 심판은 안스러운 표정으로 박지규를 쳐다봤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추신수 2경기 연속 선두타자 홈런

강정호 벤치 피츠버그 패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 사진)가 이틀 연속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터뜨리며 4경기 연속 멀티 히트와 1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 1회말 우측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시원한 솔로 아치를 그렸다.

볼 카운트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요르다노 벤투라의 시속 158㎞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장쾌한 대포를 뿜었다. 시즌 5호 홈런으로, 개인 통산 11회 선두타자 홈런을 16개로 늘렸다.

팀이 2-0으로 앞선 2회 무사 1루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벤투라의 시속 154㎞짜리 초구 빠른 볼을 끌어당겨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1루타를 날렸다.

4회에는 2루수 땅볼을 날리며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 들여 타점을 추가했다. 이날 2타점을 가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16개가 됐다. 7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24(107타수 24안타)가 됐다. 텍사스가 5-2로 승리했다.

4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이어가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이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경기에서는 벤치를 지켰다. 피츠버그는 2-3으로 져 4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정민준기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손흥민 /AP 연합뉴스

손흥민 시즌 18호골 재도전

상대는 호펜하임… 김진수와 맞대결 '관심사'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손흥민(23)이 김진수의 소속팀 호펜하임을 상대로 시즌 18호골에 재도전한다.

레버쿠젠은 오는 16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호펜하임과 2014-2015 정규리그 33라운드를 치른다.

레버쿠젠은 31라운드에서 선두 바이에른 뮌헨을 2-0으로 이겼지만 이어진 묀헨글라트바흐와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했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2경기를 남겨 놓은 데다 호펜하임전이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레버쿠젠은 확근한 공격 축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공격 선봉에 선다. 지난달 11일 마인츠전에서의 득점 이후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은 호펜하임을 상대로 시즌 18호골에 재도전한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17골을 넣었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세운 분데스리가 한국인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19골)에 2골이 모자라는 기록이다.

호펜하임의 왼쪽 수비수인 김진수는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교체명단에 포함됐지만 출전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이번 경기는 '슈틸리케호 태극전사'의 맞대결 성사 여부로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16일에는 구자철과 박주호가 뛰는 마인츠가 쾰른을 상대한다. 지동원과 홍정호가 소속된 아우크스부르크는 하노버와 맞붙는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은 17일 오후 9시30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시즌 9호골에 도전한다.

/김성호기자 ksh@

양파, 내달 텍사스서 애국가 부른다

텍사스-다저스전 앞서 '한국인의 날' 기념 행사

가수 양파(사진)가 6월 16일(한국시간) 오전 9시 5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LA 다저스 경기에서 애국가를 열창한다.

댈러스한인회는 '한국인의 날'을 기념해 텍사스 구단과 손잡고 이날 가수 양파를 초청해 동포와 흥겨운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인회는 추신수(33)가 텍사스 유니폼을 입으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인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 당시 여성그룹 원더걸스의 멤버인 예은이 애국가를 불렀다.

올해 '한국인의 날'에는 추신수와 텍사스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동포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텍사스 팬에게 한국을 널리 알리고자 5만 달러(약 5500만원)를 들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보부스를 개설하고 태극부채와 한국 홍보 책자를 나눠주며 미국 남부 주민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파는 최근 MBC '나는 가수다' 시즌3 가왕전에서 우승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미국 버클리 음대에 유학해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그는 애국가에 이어 미국 국가도 부를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노블레스 말라드'가 만연한 사회 희망이 없다

김하성의 세상보기

오늘은 34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교육계는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스승존경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보은(報恩)행사를 마련, 훈훈한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봉사와 열정으로 묵묵히 교단에서 종교계 지도자로 각기 분야는 다르지만 참스승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책임)'를 몸소 실천한 큰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필자는 매년 이맘때면 국민적 추앙을 받는 몇몇 참스승을 떠올리게 된다.

내달 7일로 서거 4주기를 맞는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을 빼놓을 수 없다. 김 전총장은 일제강점기에 광복군으로 활동한 독립투사이자 광복 이후 교육자와 학자로서 철저한 지킨 시대의 스승이다.

특히 1985년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때 시위 주동 학생에 대한 징계압력에 맞서 총장직을 내던졌다. 노태우 정권이 집권한 1988년에는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았으나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게 되는 전두환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제자들이 많은데 스승이라는 자가 그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없다"며 고사한 일화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들에게 경종을 울렸을 뿐 아니라 후대의 석학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종교계의 거목 '바보 천사'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한 성직자이자 우리 시대 참스승이다.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각막 기증을 통해 남긴 생명나눔 의 정신은 선종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추모 열기만큼이나 뜨겁다.

'평생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했던 법정스님의 발자취도 그립다. 자신의 병고마저 끌어 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빈의 도를 따라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해 입적 후 5년이 지났지만 시공간을 넘나들며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가르침은 세인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쉰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 역시 존경 받는 기업인이다. 1971년 76세의 나이로 타계하면서 남긴 유언장이 금년 1월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청자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화제를 돌려보자. 요즘 연따라 터지고 있는 각종 비위 소식은 전하다 보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해준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가 어제 검찰에 소환되는 등 '성완종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고 회사 돈을 횡령한 SK, CJ 등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를 계기로 재벌 2, 3세들의 안하무인격 행동은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정치인, 전직 검찰 고위간부, 군 장성, 의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의 섬(性)추문도 끊이질 않는다.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말라드(병들고 부패한 귀족)'로 몰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블레스 말라드'가 만연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충고한다. 스승의 날을 맞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참스승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 우리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부국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동반위, 펠릿보일러 中企업종 선정… 누굴 위한 건가

기자 수첩

박상길
<산업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가정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지만 중소기업 규원테크도, 대기업 귀뚜라미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펠릿보일러 제조업체가 자신들을 포함해 규원테크, 넥스트에너지코리아 세 곳뿐인데 이번 조치로 새로운 독과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원테크는 귀뚜라미가 시장에서 퇴출돼야 신생 중소업체가 진입해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제3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귀뚜라미 등 대기업이 3년간 펠릿 보일러 시장점유율을 현재 30.4%에서 추가 확대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펠릿 보일러는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보일러로 대부분 중소제조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규원테크는 동반위가 귀뚜라미에 내린 시장에서의 30.4% 점유율 제한 조치는 사실상 귀뚜라미를 보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뚜라미의 완전한 시장 철수를 바라는 것이다.

불만은 귀뚜라미 측도 마찬가지다. 귀뚜라미는 50년간 보일러업계를 이끌어온 국내 대표 기업인데 이제 와서 보일러 제조를 줄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동반위가 중소기업에 양보하라는 압박을 해 유통망 확대를 줄이겠다고 제안했는데, 조치가 내려진 것은 시장점유율 30.4% 제한이었다며 합의사항도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불평했다.

동반위의 현실성 없는 일방통행식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름만 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확실히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대기업의 반발만 부르는 동반위의 결정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 Shooting Rampage at a Military Training Camp

A shooting spree by a South Korean reservist left two people dead and three others injured. The reserve soldier killed one and wounded three others before killing himself in a shooting rampage at a military training camp in Seoul on Wednesday morning, the Defense Ministry said. The wounded were transported to a military hospital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and other civilian hospitals near the site. But one died during medical treatment and another was reportedly in a critical condition. The remaining two are said to be stable, according to reports. But initial reports showed that the gunman was one of soldier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He was rated as class-B with A being the worst. During his service, Choi was sent from one unit to another as he failed to adapt to military life. He also had a medical record of depression, reports added. The military said all victims are reservists. Some 545 reservists were participating in the shooting practice as part of a three-day training session that started on Tuesday. The reservists are still standing by at the training camp even now. The cause of the incident still remains unclear.

/가고다어학원 영어통역 Chris Kim(김종진) 강사

예비군훈련장 사상 처음 총기난사 사건 발생

13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자 최씨는 현역 시절 보호관심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전방 모 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8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가해자 최씨를 포함한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예비군 훈련은 전날 시작됐으며, 오는 1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 훈련에는 최소 545명이 참가했다. 현재 예비군들은 훈련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살해범이 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난사한 것인지, 자신이 죽으려고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 서동석

■ 매일방송(MBN)

△보도국 ▷사회1부장 박진성 ▷보도제작부장직대 임동수 ▷사회2부장직대 윤귀미 ▷보도제작부 보도제작1팀장 부장직대 박대길 ▷보도제작부 보도제작2팀장 이무형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 편집국 부국장 김성준 ▷데일리한국 사진부장 어해와

■ 소셜뉴스 위키트리

△이사 겸 대기자 김영철 ▷산업팀장 지부대리 손가영

■ 쌍용건설

△승진 <부사장> △김동권 <전무> △한국진 <상무보>△이건목 △김인겸 △김준현 △김현주 △전윤봉 △임채영 <상무보> △손진섭 △차윤섭 △이상돈 ◇신규 선임 <상무보> △이상엽 △박승렬 △김태진 △신재혁 △이덕수 △이준원 △김재진 △김희범 △유조식 △하종욱

■ 국민일보

△이사대우 ▷선교홍보국장 함한향 △국장 ▷종교국장 이승현 ▷편집국 통합뉴스룸 국제전문기자 이기수 △부국장 ▷편집국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김해철 ▷광고국 관리지원팀장 겸 지방팀장 조간연 △부국장대우 ▷편집국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김재하 ▷광고미케팅국 광고2팀장 홍경수 △부장 ▷편집국 사진부장 최종학 ▷편집국 종합편집부 황영철 이정우 박성공 △부장대우 ▷편집국 정치부장 김영석 ▷편집국 산업부 한수주 ▷종교국 종교기획부 윤종식 ▷선교홍보국 선교홍보팀 박창원 이기석

부고

▲김은락(뉴시스광주사 회장)씨 별세, 김주현(신의자 사장) 씨의(회계사) 기훈(뉴독중앙사)씨 부친상=서울 일원동 삼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선산(02-3410-6902)

▲전점순씨 별세, 유성준(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주무관) 진희(광주 비아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김억현(대선주조 목동지점장)씨 빙모상 = 14일 오전 4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 062-220-3114

▲김두석 씨 별세, 김동원(공기업보 국부취재본부장)씨 빙부상 = 14일 오전 5시 유전부당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10시 ☎ 063-223-8291

▲조원철씨 별세, 임연규(K.James)씨 빙부상 = 14일 오전 1시, 평택중앙장례식장, 발인 16일 ☎ 031-698-3400